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Shin J. Koh, Editor
Phone: 767-7934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9 No. 8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ember 1980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



EAST-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IATA-ATC 공인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영업안내—

- * 국내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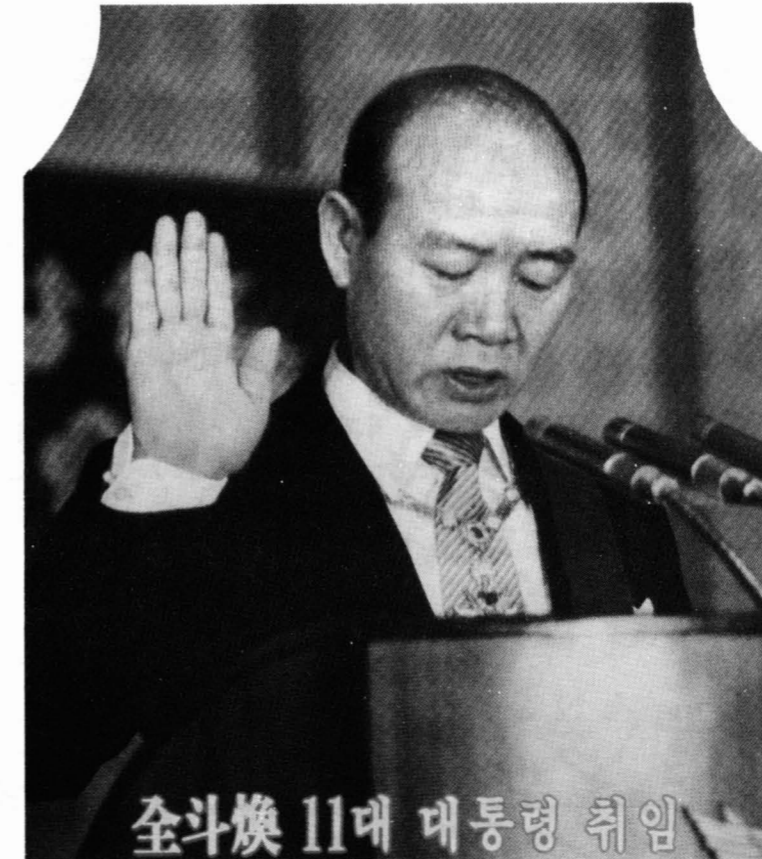
※ 국내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댁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영호



慶祝 전두환 장군 대통령 당선



全斗煥 11대 대통령 취임

9월 1일 상오 11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 새 시대의 장엄한 막을 연 전대통령은 민주복지국가,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고포 허 신씨가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국제무연 (미주 삼미사)에 근무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 학기에 워싱턴 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 첫등시에 합격의 영예를 갖었음.
- 고포 곡상영 (구 국제포구사 대표)씨는 다운타운에 Young's Gallery 를 확장 개업을 하였습니다. 조각, 액자, 자수, 서예 포구 및 서양화등을 취급함. 고민들께는 특별히 엄가로 봉사함 (625-0872)
- 김 옥 부영사 부임 (외무부 아주국근무) 씨애를 총영사 관에 9월말 부임하는 김부영사는 씨애를 발령이 첫해의 근무지임.
- 씨애를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성진)에서는 서울 영암교회 임 옥목사님을 모시고 9월 19, 20, 21일 신앙부흥회를 가졌음.
- 씨애를 영재교회 (담임목사 최용갑)에서는 언어인 방은미, 허림, 유준집씨의 노래와 관중의 밤을 19, 20 일 가졌음.
- 씨애를 성불사 (주지: 포도철) 개원 봉불식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씨애를 성불사가 지난달 31일 개원 봉불식을 가졌음. 기도 및 법회는 매주 일요일 상오 11시 전화: 367-0595
- 고포 이무남 (Phototronics Inc. 682-2646)씨는 고포 어력분들의 카메라, 쌍안경, 무비 카메라, 카세트등 수리 및 기타 문의사항에 상담하여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747-8625 오후 5시이후)
- 고포 미세스박 (박준재씨 부인)께서는 다운타운 브로드 웨이에 햄버거샵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8027)
- 박창식내과 (브로드웨이 325-6787)에서는 토요일도 개업하고 있습니다. 고포 어력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택 232-0968)
- 조진기씨 (연식식품 대표)는 고깃간을 신설하였으며 고포 어력분들께 성심껏 봉사하겠다고 함 (762-4792)

해병동지회 소식
 9월 9일 오후 7시 Puget Sound Dept. U.S. Marine Corps. League (미해병대 예비역 모임)에서 초청 한미간의 유대강화를 약속. 9월 27일 U.S. Marine Barracks NSB Co. 에서 해병동지회 전원을 점심초대 및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있음.
 11월 10일 미해병대 67주년 창립기념일 파티에 해병동지회 전원 (48명)초대받았음. (전화 937-3604)

메니스협회 소식
 씨애를 한인 메니스클럽은 지난 9월14일 45가 Royal Folk 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갖었으며 워싱턴주 한인메니스클럽으로 확대 발전되었음.
 회장: 박창모 이사장: 김현중 부이사장: 이계휘
 이사: 고봉식, 구상모, 김동수, 김종현, 박창모, 박영숙, 윤한복, 정희상, 외 2명 (이상 가나다 순)
 회비: 가족당\$30, 개인 \$20, 학생\$10.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8시부터 11시30분까지 Low Woodland Park (Greenlake에서 99쪽) 변경시 전화로 알림.
 초보자 무료 지도. 기타 문의사항은 김종현 (전화장 824-7309), 이사장 김현중 (774-7828) 회장 박창모 (522-139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포 민학근씨는 다운타운 4가에 Cedar Grocery 를 개업 성업중에 계십니다. 취급품목 서양식품 (624-7835)
- 정본언 종합보험 (Farmers Ins. Group) 사무실 이전 99번 도로 (Aurora) 100가로. (전화 523-9111)
- 고포 이수잔씨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는 미드웨이 근처 (99번 도로변)에 햄버거샵을 인수 성업중임.
- 고포 신석관씨 (Kirk Dial & Crystal Co. 대표)께서는 다운타운에서 시계수리 전문으로 취급하고 계시며 경력은 35년. 고포 어력분들께 특별히 엄가로 봉사하시겠다고 함 (623-2452)

산부인과 전문의

로 명재 M.D. (ROE, MYONG J.)

Diplomate,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 Gynecology
 Fellow,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일반산부인과 · 불임증 전문

* 임신중절은 하지 않습니다.

월. 화. 금. 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 833 ~ 2580 >**

Appointment 에 의해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9.30 A.M.
 5.30 P.M.

수. 일. 토. 일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 927-8440 >**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
 정부 및 기타 사회단체의 보조로 운영되는 직업 안내소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분, 새로 이민 오신분, 타주에서 이주해 오신분. 그외에 기술교육상담, 자녀교육 (학교) 상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포 어력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무일: 월 - 금
 시간: 오전 9시-11시 오후 1시-4시
 주소: 4726 Rainier Ave. S.
 전화: 725-8200-3

이사 임원 공동회의 (공고)

일시: 1980년 9월 27일 오후 7시
 장소: Royal Folk (소피외실) N. 45th Seattle
 안건: 1. 선관위 구성문제
 2. 총회 준비
 3. 아리랑의 밤 준비
 4. 기타

위와 같이 공고함.

씨애를 워싱턴주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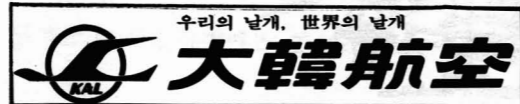


" 자연 "

김중원 박사(씨애프에 하이 연화
관리고 회답복사)

비올라의 현명가 호석. 지살박사가 사형장으로
끌려갈때 "나를 가꾸어준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궁극
적인 상황에 처할때는 진실이나 선행보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아 가고 싶은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없어 졌을때도 "미"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은 색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것
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연색이란 얼마나 이쁜
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조화(造化)를
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보기 좋다고 해도 생화(生花)
보다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드려놓은
생화보다는 자연세계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을 보는사람,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백니손은 말하기를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찬송할
수가 없어서 시를 읊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 계시
와 일반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특수 계
시라고 하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계시
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특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나 많은
교육은 하나 슬프게도 일반계시인 자연에 대해서는 거
의 없을 정도입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 그것도 야외에
배때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철저히야 되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인간이 만든 기계
나 건물안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에서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찾으면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술품입니다.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무시로 듣지 맙시다. 이는 큰 음악전당에서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들이 편 한송이의 꽃이라도 무시로 보지
맙시다. 저 꽃은 옛날 화려하게 입었던 솔로몬의 옷
보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깨끗 깨끗한 잔디 색을 무
시로 보지 맙시다. 그 색은 미술가들이 만들어 낸
색채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왜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연을 주제로한 유명한 그림을 보곤 합니다.
왜 한폭의 그림이, 그것도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유명한가요? 거기에는 "살아 있는 무엇"이 있어
서 그렇습니다. 곧 자연을 본 위대한 화가의 마음
이 그대로 그림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때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
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참으
로 아름답습니다. "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중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3 자연은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창조받은대로 창조된 대로 하나도 가깝었
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말 없이 오늘도 창조주이
신 하나님의 섭리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꾸민다
는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한송이의 꽃을 들이 맡음드르면 꽃은 언제나 때만
되면 필니다. 누구에게나 필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필는 사람에게나 아니 필는 사람
에게나 다 필니다. 꽃에는 미움이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필니다. 그것도 활짝필니다.
남에게 피겠다고 광고하면서 피는것도 아니며
남에게 나타내려고 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따라 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자기에겐 잡배주는 사람에게는 잡
배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미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선한일을 하려는가 하면 남에
게 보이려고 아름다운 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새를 봅시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우선 목상과 기도
시간을 보내며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한편으로는 새소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 ** 자동차 정비 일체
-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 TIRES
- ** BATTERIES

•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 을
영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심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환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건축

건축
신축
수리

일은
정
목수
에게

연락처: 244-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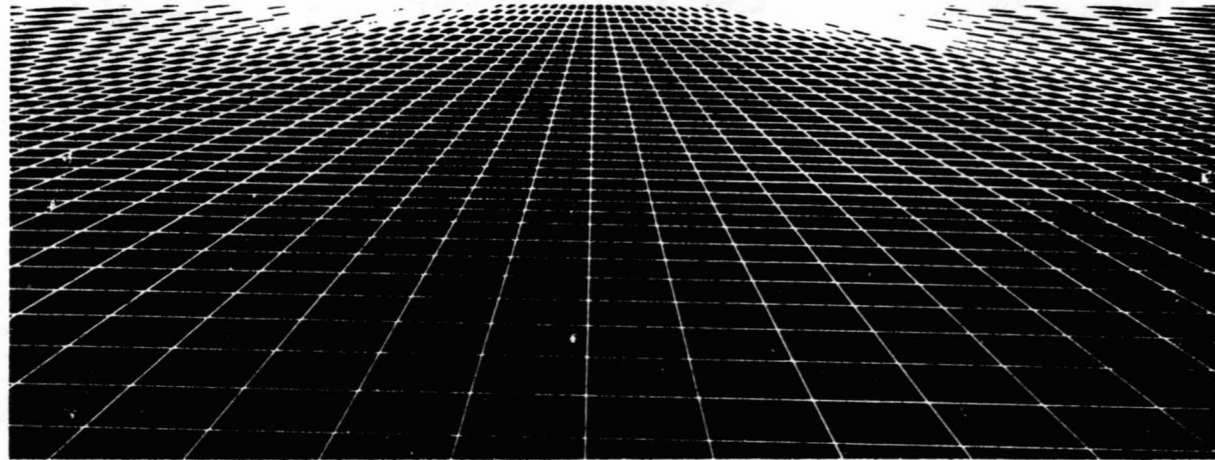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 서비스
를 약속 드립니다.

경력: 한국 정부 종합청사 하청
공. 현대건설 공사
틸라스 세라톤 호텔 증축 수리
로얄도오로 및 스타타운
그외 미국내 건축 경력 11년

아틀란타 한인 청소년 수양회의 소리들

<NEW LIFE 제광>

우리의 진정한 뜻을 밝힌다.



바쁜 이민생활속에서 항상 외면당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쩌면 부모·형제·학교를 떠나 메마른 황토길의 언덕을 혼자 배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이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밝고 구김살 없는 성숙한 인간으로의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하겠다. <편집자 주>

가정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사회: 김현기, 정리: 김혜란)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들과 보낼 시간이 너무 없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밤에 일을 하기때문에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따라서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 시간에 관계 없이 쉽게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부모와 대화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제일 가까운 부모와 자식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부모가 아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무조건 한국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한다. 또한 어느정도 우리를 이해하고 동의도 해주셨으면 한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활환경이 변화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한국식의 교육을 받으셨고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본다. 우리도 또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이미 달라져있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고 너무 우리를 억압하시는것 같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생활환경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느정도 자유가 허용되었으면 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느낄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에게도 개인의 생활이 있다. 그러므로 내방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우리에게 대한 교육열 속에는 지나친 기대가 있다. 부모님들이 미국에 오신 큰 이유중 하나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게 하려는 꿈도 가지고 계신것 같다. 부모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다르므로 가끔 우리들의 한계를 느낄때가 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사정과 한계를 이야기할때 부모님께서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

부모님은 집안일과 직장일을 구분해 주시기를 바란다. 밖에서 속상하고 기분나쁜 일이 있어도 집에서 이야기 하셔서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가 안정을 잃기 쉽다. 밖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미래의 포부를 지닌 학생으로서 자기만족을 위하여 또 대부분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미국오셨다는 많은 부모님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실현시켜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해결책: 어떤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일생에 매우 중요한 선택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미래의 생활 모습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지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적은바대로 언어의 장벽이 우리의 발전에 악조건이 될것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부모님과 나아가서 조국의 이름을 위해서도 다른학생이 한두시간할 때 난 네 시간 한다는 정신으로 공부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로 활동할 시간도 없이 공부에만 쫓겨야하느냐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멋지게 노는법을 알려 규칙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노는것도 시시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하면 좀더 능률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때 노력의 댓가에 따른 대학과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어느학교가 자신에게 알맞는가 하는 점은 우선 자신의 개성과 취미, 부모님과 선생님의 조언, 혹은 경험이 풍부한 선배의 충고, 또한 기도로서 인도를 구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부모님이 화를 내실때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님과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의 도움으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대화의 기회를 만들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부모님이 공부를 함으로서 발전이 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서는 영어공부에 대해서 너무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다. 미국에 살려면 영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오해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영어공부를 하셔야겠다. 우리가 부모님의 영어공부를 도울수 있는 길은 영어를 가르쳐드리며 단어를 외울수 있도록 부모님의 눈에 쉽게 띄는곳에 영어단어를 써붙여놓아 단어를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교와의 관계 (사회: 권혁범, 정리: 강승희)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성적을 원한다.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미국 학생들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자신의 만족과 부모님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성적을 얻고 싶다.

●해결책: 무엇보다도 도전적인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우리가 겪어야하는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부에 도움을 위한 미국친구와 선생님과의 교제에도 좀 더 참여를 해야하며 부모님의 알뜰한 숨은 도움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환경과 언어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가 귀찮아지기가 쉽고 비뚤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 좀더 공부에 취미를 부치고 서툰은 미국생활에 익숙어지고 영어를 배울려면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해결책: 적극적인 클럽활동과 학급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동양학생의 경우 영어를 못한다는 것과 피부색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자기자신을 나타내기를 꺼리는 예가 많다. 절대로 그러한 핸디캡이 자신의 성장을 더디게 하지말자. 미국생활에 익숙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자발적이고 오픈마인드가 되어서 친구와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빗 스타인씨는 한인회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쥘리아드 음악학교에서 한국인을 문히생으로 가졌었으며, 시애틀에서도 한인 교포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283-4759)



JUILLIARD
STAFF PIANIST
Recently relocated to Seattle
Accepting limited number of serious students
PIANO INSTRUCTION
STRING & VOCAL COACHING
283-4759

가을과 한국의 여인



이 천 환 (대한·성공회 주교)



가을에서 한국 여인의 모습을 회상해 본다. 어떤 공통된 정서와 표정이 얹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여인은 아무래도 애상된 모습이다. 말하자면 낙엽지는 조용한 산골의 수심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온상고결의 국화로도 비유된다.

말하자면 그렇게 靜穩한 모습안에 강한 덕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은 벌써 시대적인 착오라고 공박할지 모른다. 오늘날 어디 그런 봉건풍의 여인이 있느냐고, 나로서는 꼭 그렇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 한국여성에게는 그들만이 갖는 고독이 있다. 아무리 활개치고 다니는 자유여성이라도 그들이 한국땅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그 고독을 완전히 버릴수는 없다. 나는 이 한국여성만이 표정을 좀더 넓은 세계적 지평에서 부각시켜 본다.

한국의 여인이 아름다운데가 있다는 것은 구미여성들의 모습과 대조함으로써 확인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미의 젊은 여성들은 초록빛 왕성한 여름과도 같다. 울긋 불긋한 무늬의 옷으로도 그들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표현된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감정이나 생각이 조금도 억제될 수 없다. 느끼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표현하게 마련이다.

한국의 여인모습, 어디에 이런 것이 있는가? 내심이야 어떠한 한국 여성의 표현은 대담하지가 않다. 또 능동적인 현대여성기라도 한국여성의 표현은 구미여성 같지가 않다. 표정이나 행동은 우선 그 정신적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들어 보겠다. 어느 외국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본 것으로 한국 신혼부부의 결혼식중 키스장면이다. 아무리 한국식으로 하는

한국교회라 해도 결혼식중에 키스순서를 빼면 그 젊은 부부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또 원망까지 하기 쉽다고 하여 흔히 주례 성직자는 그 키스의 기회를 주고 관객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딱할정도로 부자연스럽다.

문화와 전통은 오랜 생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땅에서 자란 한국의 여인이라면 그 조용한 가을의 정적을 버릴 수 없다. 한국여인의 역사적 정황이 너무도 비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정세에 대하여 눈을감은 완고파가 아닌한 한국여인이 당한 그 많은 설움을 의당한 것으로 여길자는 없을 것이다. 남존여비니 여필종부 따위는 덕이라기 보다 여성 노예화의 원시적 수단이었다. 지금도 아프리카 등지의 후진국에서 그와 비슷한 사회현상을 볼 수 있다. 여인을 학대하는 민족치고 그들의 후손이 훌륭해진 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들, 다시말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역사적 모습은 그토록 참혹한 것이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여인도 그러한 무시를 당하지 않는가? 우리의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극히 미개한 후진국 외에는 볼수 없는 여인학대 현상이 우리 사회안에서는 꽤 판을치고 있다. 우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식모」라는 말과 그 고용상태이다. 가난한 집 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말로 변명할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그렇게도 권익을 옹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의 노예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여인이 있는 이 사회현상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식모라는 계층에만 한한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의 온갖 집단적인 악에 짓눌려 정당한 발언권조차 없이 후사당하고 유린당하는 젊은 한국의 여인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안다. 한국의 여성은 아직도 슬프고 외롭다. 그 슬픔많은 여인에게서 태어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또 눈물과 한숨을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한국여성의 조용한 마음모습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다. 그 모습속에 있어서는 안될 고통의 요소만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 요인만 사회적으로 제거된다면 그 靜穩한 한국여인의 진정한 의미의 동양적 덕성미로 승화될 수 있다. 사실 조용한 여인의 모습은 가을의 청초한 매력같아서 아름답기 비길데 없다. 날로 남성해지는 남성화의 경향을 띠고있는 서구의 못여성들 보다는 월등히 고결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과 한국의 여인을 함께 긍정해 본다. □

안내 

BEIKOKU

DRIVING SCHOOL
ROBERT R. CHERRY

 歡迎 

PHONE
365-2312

韓國 · 日本 · 中國

 Commercial Printing

119 YALE AVE. N. SEATTLE, WASHINGTON 98109 (206) 622-7371

노순열 부동산



EQUITY EXCHANGE



부동산 거래의 성패는 AGENT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 · 상가 · 아파트 · 매매
중개 · 전세 · 주택가격 조정.
주정부 인가 GENERAL CONTRACTOR
(건축 허가 · 신 · 증축 공사 시공)

전화: (206) 763-0341 (사무실)
542-7977 (집)

영업안내

- 지붕수리 · 정원정비
- 울타리공사 · 타이루공사
- 호마이카 · 카비넬
- 콩크리트 · 배관·전기.



주택의 신축 증축 보수

정확한 견적 완벽한 기술 저렴한 가격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보장

KIMS, REMODELING SERVICE.

김, 목공소

※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야 771-8019

3825 - 191st S.W.
LYNNWOOD, WA. 98036

10월 18일 브로드웨이 거리서

利益金 전액 韓人會館 건립기금으로

뉴욕서도 코리언 퍼레이드

20만弗 규모 建物 1년내 건립 방침

시카고 建立委와 韓人會의 마찰 해소돼

韓人會館 건립募金에 박차

아랫층은 임대 : 2층은 會館겸 노인회로

15萬弗 기금으로 30萬弗짜리 建物 구입

桑港한인회 年内 會館 마련

지역교포의 숙원인 씨애를 워싱턴주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교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라고 있습니다.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7-7934) 건축기금 모금함은 아줌마식품, 중앙식품, 연대식품, 오대양, 그랜드식품, 동양식품, 한국식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월의 재정 소식

8월20일 - 9월 18일(순위는 납입순)

한인회비	특별기금	한글학교 기금	건축기금
123. 언도송 50.00	김길량 112.00	남사영 25.00	-0-
124. 언정우 15.00	정철식 120.00	오이규 35.00	
125. 언정우 20.00	양백승 110.00	오이규 25.00	
126. 언정우 20.00	이덕기 31.00	오이규 25.00	
127. 언정우 30.00	김정부 30.00	오이규 35.00	
128. 언정우 25.00	리간난 20.00	오이규 25.00	
129. 최재문 15.00	계 423.00	오이규 25.00	
130. 심상혁 15.00	한인회비 : 월중 \$205.00	오이규 25.00	
131. 박승 15.00	건축기금 : 월중 -0-	합계 2,290.00 (총 131명)	
계 205.00	년중 \$2,085.00	합계 13,033.31 (총 40명)	
	년중 \$2,264.31		

- 한인회 발전을 위해 각종 기금 보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인회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 특별기금을 보내주신 김길량씨의 5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인회비, 건축기금, 특별기금, 한글학교 기부금, 한인회보 광고 찬조금, 한인회 행사시 현품 기증등 희사품에 대한 영수증 발송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송 예정일은 10월 중순이며 이사를 하신분은 발송 이전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7-7934)
- 한인회비는 개인10.00, 가족당15.00 (1년) 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인회를 외면하며 무관심하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고달프고 바쁜 이민 생활속에서나마 잠시 한인교포들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인회보는 매월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벌크 메일은 주소가 변경된 곳으로 우송되지 않으며 되돌아 오지도 않습니다. 1부의 회보라도 허실되지 않도록 주소변경을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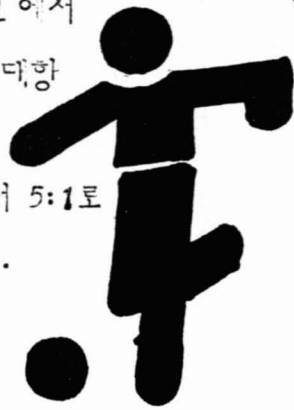
대회 소식

지난 8월23일(토) 11시 밴쿠버(캐나다) 소재 스트라코마 파크에서 제3회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배 생활 북미 배평양 연안 도시 대항 연례 축구대회가 밴쿠버 한인 축구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씨애틀 팀은 A 팀, B 팀으로 출전하여 밴쿠버 A 팀을 결승전에서 5: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여 작년도에 이어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전상욱군(씨애틀)

인기상 윤택진군(")

장력상 강승철군(")



8월22일(금) 오후 8시경 노스 게이트 몰에서 출발하여 밤 11시경 밴쿠버에 도착. 축구협회 양회장대에서 30여명의 침식을 제공.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고, 우리 선수 일행과 임원진도 모두 양회장님대호의 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채 씨애틀로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고민 여러분과 정철식회장님께 심신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체육부장 이 덕 기

지난 8월 23일(토) 오전 9시 케모노 아일랜드 스테이트 파크에서 열린 고민낚시대회에서는 100여명의 고포들께서 참석하였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대어상 유백운(4 파운드 Red Rock Cod)

다어상 오일성

섭섭상 김경백

이번대회에 협조해 주신 고포 여러분과 후원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병동지회 김 두 영



IOI AUTO REPAIR

Auto Body

COLOR MATCHING SPECIALISTS

색깔이 안맞을까 걱정을 하십니까? 오십시오.

◆ 본 바디샷은 다음 종류의 차들을 수리합니다.

●미국내차 DOMESTIC

▲ALL FORD 및 CONTINENTAL

▲ALL CHEVROLET 및 CADILLAC

▲ALL CHRYSLER

▲ALL AMERICAN MOTORS

●외국차 FOREIGN

▲ALL VOLKS WAGEN

▲ALL DATSUN 및 TOYOTA

▲ALL MAZDA 및 AUDI 외 모든 외국산차

◆ 특별취급 ◆

모든 자동차의 유리 Windshield, Doorglass, Backwindow를 최저의 가격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 드립니다.

●FREME MACHINE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인트(FULL PAINTING)

본 바디샷만이 특별히 지니고 있는 특수한 기술로

생산공장과 같은 전체 칠을 합니다.

★미국내 제일 제품인 PINK사의 PAINT BOOTH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료견적

◆ ALL INSURANCE WORK

전화 525-5778

집 789-2655

주소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허남일 드림



완오완 오토바디 샷

서울에서 온 편지



언니께 드립니다

올 가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네요 .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오는 것 같아요 .
 지금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
 그렇게도 자지않던 온종이도 잠이 들고....
 저는 뜨거운 커피 한잔과 언니와의 단둘이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 한테나 온종이 아바와도
 언니 이야기를 할때가 많지요 .
 언니께서는 저에게 말 벗이 되어 주기도 하였
 으며, 잘못하는 일에는 야단도 쳐주셨고...
 그럭저럭 더욱 정이 들었나 봅니다.
 언니가 한국을 떠난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
 었으니 나이는 불림없이 먹었지만 옛날 언니
 가 생각하는 젊부지 마네 시누임에는 불림이
 없어요.

(중략)

저의 둘째시동생은 가을쯤 사우디에 2년간
 근무하게 되어 떠난답니다. 아마도 집을 마련
 하기 위한 결정인 것 같아요.
 동서가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딸만 언젠 날으니 시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큰동서 노릇을 깎듯이 할려고 합니다.
 언니가 저에게 늘 말해주었듯이 좀 미끼는듯하
 게, 동서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자면 언니가 멀리 있지만 글로라도 충고를
 해주어야겠는데 이렇게 소식이 없어서야 대화를
 어디 하겠습니까?
 언니가 직장생활, 집안살림, 건강관리등 분주하게
 보내시고 있는줄 알면서도 모두가 다 궁금 부성입
 니다.
 글 부리고 밥을 먹지 않았던 삼삼동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재잘대며 시간가는줄 모르다가
 가슴조이며 놀려야 했던 초인중.....

데이트 신청 전화 받고 나갈라치면 큰너석이
 남자전화라고 일러져서 언니에게 혼나던일...
 데이트 장본인 온종이아빠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기다려
 야 했던 수많은 남들을 언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언니처럼, 엄마처럼 엄하고 다정했던 언니가
 없는 서울은 허전하고 쓸쓸함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조금씩 늦어지는 편지가 행여 저를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따끈한 커피를 마실때 저를 생각하는 것 잊지마세요.
 사진에서 아이들이 너무 나 변했더군요. 키도 나 만큼 하니
 안아 볼수도 없겠지요?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들 데리
 고 한번 다녀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언니, 오빠를
 제대로 모실수 있겠습니다.
 만나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록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천주님의 온총이 가득하시기를....

서울에서 경아 드림

생 입

로 져 비

내 마음은 샘물가
 어린 가지에 깃 짓고 노태하는 새
 내 마음은 주렁 주렁 열린
 열매가지 휘늘어 드린 농금나무
 내 마음은 고요한 바다에서 노니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 빛조개
 내 마음은 이것들 보다 기쁘도다
 내 사랑 나 한테로 왔나니
 나를 위해 밭솥자리 만들어
 자주랑 갈색 비단을 씨우락
 그리고 그 위에 산비둘기와
 석류와 눈 많은 공작, 그것들을 아로새기고
 금빛 은빛 포도송이를 꾸며 놓으라
 나무잎과 은빛 연미화 위에
 내 생일이 되었나니
 내 사랑 나 한테로 왔나니



변호사 윤영일

미국명 : EDDIE YOON

- 전 타코마시 검사 -

- 이민, 가정문제, 자동차사고, 상해
세법, 취중운전
- 민사, 형사, 국제상사관계, 법률일반

● 사무실

SUN PLAZA BLDG. SUITE A-4
 10209 BRIDGEPORT WAY S. W.
 TACOMA, WASH. 98499

● 전 화

타코마 : (206) 582-7996
 565-6005



기광선 보험

- 보험선택은 자기에게 알맞게!
 ■ 각종 보험의 상담은 전문가에게!



- ※ 생명보험 ※ 저축보험 ※ 교육보험
-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사업보험

시애틀 : 622-8966
 캔트 : 854-3500
 타코마 : 924-0350
 자택 : 941-5161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5 W. HARRISON ST., P. O. Box 1088
 KENT, WA 98031

" 마음 편히 잘 살자면"

박 암 (수상집 율해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한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 마음 편할것을 말하는 것일것이고, 둘째는 몸 건강할것을 말하는 것일것이고 셋째는 생활에 별 근색이 없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여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보태자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높은 지위도 이에 보태져야 할것이다. 하여튼 간단히 말해서 잘 산다는 뜻은 마음 걱정없이, 의식주 걱정없이 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물론 우리가 잘 살기위해서는 제일 마음을 잘 쓰고, 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마음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일까?

그는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을 잘해야 한다는 말은 입을 착하게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지난호 퀴즈 답

싱글 벵글 웃으면서

사장 왈: 나도 집에가서 마누라에게 물어보고 오겠네.

임시 총회소집 결과 (회칙개정)

본회정관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10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수 있다.

제12조 (추가) 다) 전임회장은 계속적인 한인회 회정에 참여키 위해 임기 1년의 자등이사가 된다.

제15조 나항 (추가)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반회원으로서는 본회가 정한 회비 또는 회비 이상의 액수를 기부한자

제30조 이사의 임기중 단서는 삭제

부칙

80년 9월 19일 임시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유효하며 80년도 회장단의 임기는 개정회칙에 의하여 80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한다.

투고 환영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아마도 정녕 가을이 왔나보다. 왠지 알지 못할 생각에 잠길듯하며 걷고 싶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하얀 종이위에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나 만이 알수있는 7.노.과 1.2.를 써 볼까? 그보다 정성스레 원고를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겠다. 보다 나은 회보가 발간될수 있도록 많은 투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한인회 주소로 매월 15일 이전, 도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편집부

DO YOU NEED A LAWYER?

6인 합동 법률 사무소

전문 변호사 안내

로날드 G. 브라운 律師

ESTEP & LI ATTORNEYS AT LAW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ice: 682-0565 Home: 821-4465

신장 한국관 개업

KOREA HOUSE RESTAURANT (구 한국식당)

* 전통적인 우리의맛!!

★ 냉온방완비 • 시원한 특미의 냉면

★ 진미의 순두부백반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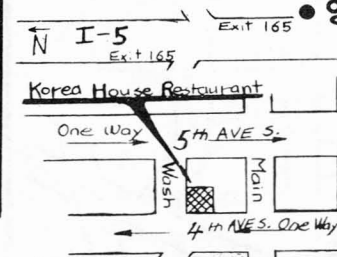
●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서비스도, 음식맛도 달라졌습니다.

● 영업시간 : 상오 11시부터 하오 9시 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업) 주 소 : 212 4th AVE. SO SEATTLE, WA. 98104

전 화 : (206) 622-1936

대표 송 기 만



* 주방에서 일하실 여자분들 구합니다.



교민여러분이 즐겨찾으시는



현대식품

고기간 개찜

- 동양 식품 일절
- 최상급 등심불고기·갈비
- 샤리드기 일체
- 큰 판매
- T가 나
- 가조 서분
- 서적 대여 및 판매

소문난 김치류
집적 만들어 내는 각종
김치류와 찹쌀고추장, 된장



조선간장이 항상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찾아
주셔서 감사
합니다

무협지. 신간서적 대량 입하!

◀영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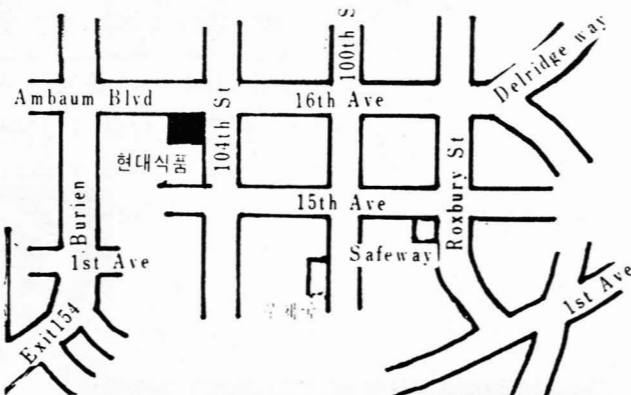
아침 9:00~밤 9:00

10402 16th Ave. S.W.



762-4792

↑(5)종마역↑



여행의 상담자

김의여행사



대표 김상성

CP Air
Canadian Pacific



모국방문 특별할인

귀국선물안내 공증 업무 취급



Advance
Properties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BUS: (206) 624-2227 / 624-2228

RES: (206) 364-9934

Kim's Travel Service
ROOM 619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206) 523-9111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325-5032 RES : 367-1534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546-6586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767-793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

WA 98006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1967